

지역 소식 통

기초보장수급자 방문상담

김제시 요촌동행정복지센터(동장 송해숙)는 복지 사각 없는 요촌동을 만들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지역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하며 현장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방문상담은 5월 17일까지 3개월간 실시되며, 개별가구에 대한 가정방문을 원칙으로 모니터상담지를 활용해 가구별 주거 및 생활실태, 안전, 복지 욕구 등을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요촌동은 방문상담을 통해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적정성을 확인하고,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적극적인 복지 행정을 펼쳐갈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완주군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나서고 있다.

20일 완주군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는 공익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농업인이 농업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 융자금 등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직불금과 통합 신청을 통해 농업경영체 정보를 현행화 해 왔지만 금년도에는 소농직불금 산정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을 하고 공익직불제를 신청하는 분리접수를 추진한다.

직불신청 시 소농여부 등 기초정보가 사전 제공돼야 하므로 사전에 농지소유 면적, 농의 소득 규모 등의 농업경영체 변경 사항 및 소규모농가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1ha 미만)를 제출해 경영체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군은 개별농업인에게 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1ha 미만 소규모농가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를 2월말까지 읍·면에서 배부할 계획이다. 농가는 정보의 변동 사항에 대한 변경등록신청서 및 확인서를 3월 20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군은 31일까지는 입력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공익직불제를 신청 받을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방역체계 대폭 강화

정철우 부군수,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예방 총력 당부

대구·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완주군이 방역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총력 대응체제를 재점검하고 나섰다.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오전 군청 5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정철우 부군수와 전 실과 부서장, 읍·면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2차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한 중국 유학생 대응 방안과 노인복지 분야,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경영안정 대응 등 9개 분야 대처방안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중국인 유학생의 대대적인 입국을 앞둔 시점에서 대구·경

북지역에서 2·3차 감염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고 보고 완주 지역의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철우 완주군 부군수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에만 22명이 급증하는 등 총 82명으로 늘어나 지역사회 대처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특히, 중국 유학생의 대거 입국을 앞두고 해외여행 전력이 없고 다른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이 없는 확진자들도 나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완주군의 방역망을 더욱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주군보건소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하

는 등 선별진료소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소는 자가격리자 관리전담팀 1대 1 모니터링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군청과 청소년수련관 등 6곳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완주군은 또 다음 주부터 중국 유학생 입국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가족사 입소 유도와 자가진단 앱 설치 의무화, 도·시군·대학 간 핫라인 구축 등 입체적인 대응체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선 아직 긴장의 끈을 늦출 단계가 아닌 만큼 읍면 이장회의와 부녀회장회의를 서면회의로 대체할 것을 요청했으며, 주민자치프로그램도 3월말까지 개강 연기를 협조 요청했다.

아울러 지역 내 각종 문화관광시설에는 손소독제와 비누 등의 구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시설 종사자 대상 출장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으뜸상품권 특별할인판매와 전통시장 시장사용료 감면,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입체적인 대책을 강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군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안이 20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 지침에 맞춰 의료진 판단에 의한 감염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외 여행력과 상관없이 적극 검사를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난 19일 조재호 농식품부 차관보가 전북삼락로컬마켓 혁신점을 둘러보고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완주군 '푸드플랜' 현장 방문

조재호 농식품부 차관보, 전북 삼락로컬마켓 혁신점 찾아 간담회

조재호 농식품부 차관보가 전북삼락로컬마켓 혁신점을 찾아 완주군의 푸드플랜 현장 목소리를 수렴했다.

20일 완주군은 지난 19일 조재호 농식품부 차관보가 방문해 전북 삼락로컬마켓 혁신점을 둘러보고 현장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센터장 및 이사장,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완주군 푸드플랜(로컬푸드, 공공급식)과 사회적농업 연계방안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14일 이상 입원·격리

4인가족 기준 123만원

김제시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의한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이 치료와 격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염예방법에 따라 방역 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지원할 예정이다.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관련 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며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 주민등록표 가

구원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결정하며 4인가족 기준일 경우 123만원이 지급되고 14일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으로 지원하며, 외국인 가구는 1인으로 산정되어 지원한다.

신청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며 신청기관은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이며, 신청서류는 생활지원비신청서와 신청대상자 명의의 통장지참하고 퇴원일 이후 또는 격리 해제일(14일) 이후에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입원 또는 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가구 중 소득 활동 부재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에 처한 가정에 대해 생활지원비 신청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여성소비자연합 김제지부

저소득 학생에 장학증서 전달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제지부(회장 김영하)는 20일 신평동행정복지센터(동장 임정업)에서 관내 저소득가정 중학생 2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1년 동안 장학금 지원을 받은 김 모 학부모는 "홀로 어린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1년동안 후원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다"며 "올해도 지원을 해준다면 몸둘바를 모르겠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김영하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훌륭한 청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귀농·귀촌 활동화 멘토 위촉장 수여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란)는 최근 예비 귀농귀촌인 또는 5년 미만의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귀농귀촌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멘토·멘티 컨설팅 운영의 일환으로 성공한 귀농인들로 구성된 16명(대표 고민우)에 대하여 '귀농귀촌 멘토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 사업은 안정적으로 정착한 귀농귀촌인들이 일반작물 및 특수작물 재배방법, 분야별 농식품 가공 기술, 효율적인 농작업 기술, 체험학습장 운영 등 지역장으로 활동하기까지 성공한 농업인으로서 후배 귀농인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먼저 농업을 시작하며 성공한 사례를 직접 가르쳐주면서 함께 배워나가고 지역민들과 조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제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성공적 귀농귀촌 활동을 돕기 위해 귀농귀촌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귀농귀촌 안정



정착교육, 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귀농창업 활성화 교육 등을 실시하며 귀농창업 및 주택 구입 용자사업, 영농정착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며 도시민 상담 및 교육, 박람회, 지역축제에 귀농귀촌 홍보관, 도시민 귀농체험학교 등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신미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새로운 도전으로 시작한 귀농이 성공농업, 성공정착이 되기까지 멘토로서 역할을 성실히 맡아주기"를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